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



건강하고 싶은 당신에게

요즘 운동 많이 하시지요? 저녁 산책에 나서면 운동하는 이웃들을 솔하게 만납니다. 입회비를 내고 등록해서 맘을 흘리는 헬스클럽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동네 골목길이나 한 뼉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동을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빠르게 걷거나 또는 줄넘기를 하는 등 나름대로 매우 진지하게 건강한 몸 만들기엔 열심입니다.

건강!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제1순위의 희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덕담은 대부분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지만 지나친 재물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고, 행복한 것도 좋지만 너무 행복해도 호사다마라며 경계합니다. 미남미녀를 배필로 맞이하라는 덕담도 견제지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라며 적당한 아름다움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유독 건강에 관해서만큼은 "적당히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실례가 됩니다.

에 있는 병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한글대장경 48책 152쪽)

건강이나 무병장수는 절대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다름 아닌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고 이웃들의 마음에서 번뇌를 털어주는 보살의 삶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는 인연화합이 풀어지면 결국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덧없는 몸에 '나'는 이리저러 해야한다며 집착을 가지고 화를 내는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부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을 없애가는 일도 이 덧없는 몸중이를 가지고 해야 하니 우리는 건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수 없이 오랜 세월동안 지켜로 내려왔은 어리석음을 털어 버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건강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데 그 마음이 담긴 그릇이 바로 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웃을 위해 발나밋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는 육체는 필수입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슴 동산에 계시실 때 나뭇라 장자가 찾아뵈고 이렇게 청하였습다. "부처님, 저는 지금 나이도 많고 또 병도 있어

무병장수는 인생 목표위한 조건일 뿐 육체는 왜 덧없나 알고 휘둘리지 말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 가치를 건강에 두고 있는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건강해진 몸으로 무얼 하며 살건대?' 감히 말씀드리자면 참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해', '오래 살아야 해'라고 주장하며 열심히 건강법을 실천하고는 있지만 건강이나 장수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건강을 강조하십니다.

"병이 없는 것이 첫째가는 이익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으뜸가는 부자다." <흠요경> (한글대장경 19책 567쪽)

이 구절을 보면 "거봐, 부처님도 건강하러서잖아. 무조건 건강이 최고라는 건 성현께서도 강조하고 계시다니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건강을 강조하시는 것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40권 회엄경>을 보지요?

"선남자야, 보살이 처음 발심하고 보리를 배우려면, 병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줄 알아야 한다. 중생들이 몸에 병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 법인데, 어떻게 바라보다 행을 뒤야 익히겠는가. 그러므로 보살이 보리를 닦으려면 먼저 몸

은갖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부처님, 제발 좋은 가르침을 내려 주셔서 중생들이 오래도록 평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과 같이 몸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많다.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저 얽은 가죽으로 그 위를 덮었을 뿐이다. 장자여,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몸을 의지하는 이는 잠시 동안의 즐거움을 잊을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귀히 여기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비록 몸에는 병이 있더라도 마음에는 병이 없게 하라. 장자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증일아함경> (한글대장경 9책 105쪽)

지금 웰빙의 열풍에 맞춰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육체의 부서지는 시간을 조금 늦추는 일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덧없는 몸을 무너지지 않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왜 덧없는 것인가 잘 살펴보아 더 이상 덧없는 몸에 휘둘리지 말고 강건한 진리의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미명(중국역경원 역경위원)



범룡 스님은 불자들에게 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힐 것을 강조한다. 그래야 무엇이 소중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 바로 보라



범룡 스님

(동화사 비로암 한주)

11월 늦가을, 팔공산은 온통 붉은 빛이다. 새빨갭게 물든 단풍과 그것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팔공산은 고요하기만 하다. 그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동화사 비로암에는 세수 91세, 법랍 69세의 노스님이 살고 있다.

범룡 스님, 스님들에게 예를 내리는 조계종 전계종 특별선원인 봉암사 조실(94~96년)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만허

한암 동산 효봉 경봉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이었으며 평생 수행의 길을 걸어오셨다.

"왜 사람들은 나날이 풍족해져도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도 뜻대로 안 될까요? 상생이 아니라 상쟁을 하며 자기 일 끝 살필 여유조차 없는 우리네의 삶이 떠올라 필자마자 질문을 드렸다.

"괴로움을 없애려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생각을 바꿔야 해요. '고즉사락(苦即是樂)'이라, 생각에 따라 고도 되고 낙도 되는 것이야. 고락의 중자가 어디 따로 있어? 고도 낙도 똑같은 것, 평등한 것인데 사람들은 제 맘대로 고락을 만들고는 혼자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모든 세상만사가 마음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란 뜻일 게다. 그 마음의 실체를 어떻게 찾을지 여쭙었다.

"마음이란 본래 '생주이멸(生住離滅)' 즉 끝없이 변하는 것이야. 마음도 몸

도 그러하고, 세상도 그러해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한번 봐, 초하루에는 요란하다가 보름에는 이만큼 커지지?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에 집착할 때 마음은 고가 되기도 하고 낙이 되기도 하는 거야. 집착하는 마음이 '고락'이지 고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 꿈도 생시처럼 보이는 거야. 깨닫고 보면 모두 한바탕 꿈인데, 꿈이란 걸 알면 고락이 모두 평등한 법인데 말이야."

어떻게 해야 그런 사실을 깨달을지 궁금했다. 그러나 스님은 대답 대신 다소 '영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고락'이 따로 있다, 집착하는 마음이지 계행 청정하게 함이 공부의 시작

"오세도 <회엄경>을 자주 읽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오늘 읽으면 내일은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나.어떤 때는 읽고 싶다는 마음까지 없어져버려. 그러다가 또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다시 읽지."

한참 시간이 흘러서야 스님이 기자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 방편을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력의 감퇴는 '4고(四苦)' 중 하나인 늙음의 증거일 텐데, 스님은 숨기거나 억지로 지어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으리라. 좋은 것인데 나쁜 것인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유자적한 삶, 여실지견(如實之見)한 선사의 풍모가 느껴진다.

스님은 종교인들의 영롱한 발언 때문에 사회가 소란스러워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따끔한 한마디를 했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서? 무슨 수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으며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뭐에 쓴데?

대한항공 전세기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부처님 마음(佛心)이 살아있는 때문지 않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출발일: 12월 5일 / 12월 13일 단, 2회 "대승항공여행사" 단독 전세기. *불교성지순례 - 종전 ₩1,688,000 ▶ ₩1,380,000 (전세기 특별가) 인천-양곤-파간-만달레이(샤가임)-양곤-인천. *문화탐방 - ₩1,450,000 인천-양곤-해호-파간-양곤-인천. (주)대승항공여행사 (www.dsatour.com) 후원 대한항공 한진관광. 서울 02)730-0202 부산 051)245-0108 대구 053)572-0108 대전 042)583-0108 광주 062)361-0108

Table with 6 columns: Day, Departure/Arrival, Airline, Time, Itinerary, and Remarks. It details two 6-day tours to Myanmar, including flight times, hotel stays, and sightseeing activities.

바칠 재주도 없고 받아갈 재주도 없어. 사람들은 제 욕심 때문에 허황된 말들을 지어내고 다름을 만들고 있어.”

범룡 스님께 다시 공부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구했다. “요즘 사람들은 생활은 나아졌지만 공부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 보는 것, 듣는 것이 엄청 많은데 정작 자기 것이 없어. 옛 사람처럼 간절함이 없어. 옛말에 ‘신유십분(信有十分)이면 의유십분(疑有十分)이고, 의유십분(疑有十分)이면 오유십분(悟有十分)’이라 했어. 믿음이 컸기에 의심도 컸고, 의심이 컸기에 깨달은 것도 많았다는 말이지. 옛사람들이 그랬다면 요새 사람들은 그에 반도 못 미치지. 믿음이 없으니 의심도 없어. 의심이 없기에 분발하려는 마음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길도 없어지는 거야. 큰 신심이 큰 의심을 부르고, 그 의심의 열매가 무르익으면 ‘탁’ 터질 때가 있지. 그게 바로 한 소식을 하는 순간이야.”

스님은 특히 신심이 투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심이 없으면 의심도 소용없고 화두도 죽은 화두가 되기 때문이다. 스님은 “의심영어리를 기어아 풀수 있다고 굳게 믿고 간절하게 화두를 들어야지. 그런 것을 믿지 않고 화두 하나만 일러달라고 하면 ‘마삼근(麻三斤)’이라고 말만 생각할 뿐이지 참선을 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화두의 뜻을 입말이 일러주며 수행을 시키는 풍조에 대해서도 경계를 했다. “화두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 화두를 받아 오로지 몰입해서 그 하나만 생각해야지. ‘평생 경전을 보았지만 경전들은 모두 제정해(戒定慧) 이것 하나만을 가르칠 뿐이야. 제는 내 입과 몸, 마음이 갖는 악업을 방지하는 것이요. 정은 흔들리는 마음을 한곳에 붙들어 매는 것이며, 해는 그럴 때 깨달은 지혜를 말하

망상이든 화두든 본래면목 가는 방편 배부르고 편하면 간절함 없어져

는 거야. 계와 정과 해가 동시에 갖추어질 때 견성성불도 이루어지는 거야.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우니 인간 몸 받았을 때 바르게 깨달도록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해요.”

스님은 계율을 청정히 함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열반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율을 스승 삼아 공부하라고 당부했지. 자장 스님도 ‘차라리 계를 지키며 하루를 살지 파계를 하고 백년을 살지 않겠다’고 말한 데는 까닭이 있는 거야. 그게 다 행동이 청정해야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화제가 자연스럽게 평생 스승이었던 한암 스님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다. “경건이면 경건, 참선이면 참선 무엇이든 다 능통한 어른이었지. 그런 재주들 두루 갖추기란 참 어려운 일이야. 내 은사인 만허 스님이, 한암 스님만큼만 중노릇 하라고 해 오대산 상원사로 가 공부할 배웠어.”

범룡 스님이 평생 지닌 화두도 한암 스님이 주신 것이다. 스님은 참선할 때 열 가지 병이 있다는 사실을 한암 스님에게서 배우며, 심중병이 모두 ‘무(無)’자 화두에 대한 병이기 때문에 ‘무’자를 참구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세수가 90이 넘는 요즘도 참선을 하시는지 질문을 했더니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참선을 할 때는 참선을 하고 망상을 할 때는 망상을 할 뿐이다”며 “망상이든 화두든 본래면목으로 들어가는 방편일 뿐 다른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암 스님 문하에서 나하고 만허 스님, 그리고 몇 스님들이 <화엄경>을 함께 공부했어. 여럿이 <화엄경> 한권으로 공부를 하러니 지금 생각해 보면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공부할 한다는 즐거움이 넘쳤지. 옛날에는 어느 스님이 선지식이다 하면 갈망 지고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갔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어. 피만 놀고 뿔 좀 안다고 으시대지만 다 알음알



무르익어 탁 터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범룡 스님.

이를 붙잡고 있는 거야.”

범룡 스님은 물질만을 중시하는 사회의 풍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셨다. “옛날 신도들은 못 살아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를 해도 지극했지. 요새 불자들은 너무 편안함만 찾아. 집 올라가는 길이라도 뛰어놓고 건물이라도 그럴싸하게 지어야 찾아오는 것 같아. 입주문 밖에서부터 걸이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데, 부처님 참배도 쉽게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절 대중들도 자주 큰 건물들 짓고 된기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무엇이든 흔하면 천혜하는 법이야. 배가 부르면 간절한 생각도 다 없어지는 거지. 참선을 안 해도 도 통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느는 데는 이유가 있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풍족히 먹고 살 수 있으니 제대로 공부하는 수행자가 드물어.” 스님은, 참선공부하는 이들은 눈보다 덜 먹고, 덜 쓰고, 덜 욕심 부리고, 덜 시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자들에게 여러 곳을 다니며 견문을 넓힐 것도 당부했다. “밖에 자주 다녀봐야 자기 나라, 자기 부모 소중함 줄도 알고 그래. 일본사람 속담에 귀한 자식은 여행을 시키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마친 후 세상을 둘러보아야 견문이 넓어지고 할 일이라도 생기는 법이야. 그런 사람이 불자가 돼야 큰 일도 하는 거지.”

정리=강유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송월 스님

군산 성흥사 주지 송월(松月) 스님은 ‘태극권 포교사’다. 태극권을 배워서 자신의 건강을 돌볼 뿐 아니라 신도들도 지도하고 주민자치센터나 교도소 그리고 군부대에도 열심히 태극권을 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붙여준 이름이다.

1970년대 말, 송월 스님이 아직 출가하기 전의 일이다.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사업가의 야망을 펼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몸이 이상이 왔다. 얼굴에 시커먼 것들이 피어오르고 옆구리가 따끔거리더니 몹시 아팠다. 입원을 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간경변이었다.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여러 달이 지나도록 차도가 없고 오히려 심해졌다. 주변에서도 걱정이 커졌는데 의사도 영 자신 없어 하는 눈치였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



그림 · 문병성

고 매달렸는데 어느 날은 도저히 어렵겠다고 해서 낙심한만하였다. 결국 병원생활을 청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집에 왔는데 친지들이 백방으로 나서서 용하다는 의원과 무당까지 불렀다.

그런데 어느 무속인이 와서 “당신은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망가져 버린 것이니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소개로 진안에 있는 마이산에 가서 천일기도를 하였다. 그저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기도했다. 오로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으니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끝까지 해 보리라”는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부르며 무릎에 피멍이 들어도 아픈 줄 모르고 짊을 했다. 엉덩이가 다 무르고 뒹아질 때까지 밖에 나가지 않고 천일기도를 거의 다 칠 무렵, 어느 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지경인데 기다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마에 젓가락같이 긴 침을 놓아준 뒤로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수없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음은 물론이다.

어느 날 스님이 찾아왔다. 그 스님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열심히 하는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분은 전라북도 불교의 큰 어른으로 불리는

준명(奉明) 스님의 판상좌 성공(性空) 스님이었다. 그날부터 그 분의 지도를 받고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공양올리는 의식을 배웠다.

그렇게 일년이 지난 뒤 사미계를 받았다. 무릎을 꿇고 참회진언을 외면서 연비를 할 때 뜻 모를 울음이 한정 없이 흘러나왔다. 제 설하기를 마치고 난 스님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제 너의 이름이 법원(法圓)이니 이 쪽에도 저 쪽에도 두루 통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날은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저녁에 자리에 누워 생각해 보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다 말고 스님을 찾아가서 여쭈었다. 은사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앞으로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제 채 말고 물도록 해라.” 하면서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통글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법명이고 ‘송월’은 법호다.

송월 스님은 그로부터 누가 뭐라고 하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습관이 생겼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건강을 되찾고 스승님의 은혜를 받아 부처님법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보니 그동안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 포교위해서 발 벗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어려서든 삶을 살았는지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그래서 다시는 자신과 같이 될 모르고 해매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쇄해서 일반인들에게 배포시를 많이 하기로 서원을 세웠다.

처음에는 불교서적 중에서 가벼운 분량의 쉬운 책을 돈이 되는대로 구해서 군산시내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런데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책을 잘 보려 하지 않았고, 심한 경우는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처박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어린 시절에 불교 기초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자라서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법회와 불교요양대학을 시작했다.

그렇게 성흥사를 군산시내 제일가는 전법도량으로 가꿔가고 있다. 또 새로운 포교방편으로 태극권을 배워서 사범의 자격을 가지고 적극 지도하고 있다. 사찰에서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나 군부대, 교도소 가릴 것 없이 포교에 힘쓰고 있다. 스님도 나처럼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기에 서로 잘 통한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전화라도 걸어서 칭찬할 라치면 그는 말한다.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뭐 있단다? 그냥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것 방향 잡아서 일러주고 같이 하는 것 뿐이지.” 전라북도 사투리와 미소면 모습에 참으로 잘 어울리는 스님이 바로 송월 스님이다.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선·교·울 두루 갖춘 손꼽히는 선지식

범룡 스님은

1914년 평북 맹산군에서 태어난 스님은 35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 38년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유점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스님은 그후 오대산 상원사로 가서 한암 스님 문하에서 <화엄경> 등 경전과 참선을 공부

하다가 41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상원사 수역사 해인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으며 <화엄경> <능엄경> 등 예도 능해 선·교·울을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선지식으로 알려져 왔다. 묘향산 보현사, 통도사 극락암 등 공부하기 좋은 선방이란 선방은 어

다른 천리를 멀다 않고 발품을 팔고 다녔다.

범룡 스님은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너무 많이 다녀서 이제는 어디를 다녔는지 기억조차도 하기 힘들다”며 “걸어 다니면서 탁발하는 일이 행선(行禪) 수행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몰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스님은 1980년 동화사 주지, 94년 봉암사 조사를 역임했으며, 77년부터 지금까지 동화사 비로암에 주석해 오고 있다.

마하몰 수험생합격기원용품 특별지상기획전

지혜의 카드,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이땅의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혜의 카드,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 : 15,000원
· 재질 : FINE GOLD 99.9%
· 색 상 : 검정, 녹색

■ 합격기원 붓다순금카드세트 : 19,800원
순금카드(꽃도파우더)+열쇠고리+휴대폰걸이
· 중앙합금(1톤)카드 : 120,000원
· 붓다열쇠고리 : 5,000원
· 붓다핸드폰걸이 : 3,000원

지혜의 반지, 합격기원 반야심경 반지

■ 반야심경 순반지 - 반야심경 친필270자기각전원 순반지
· 14K : 245,000원
· 18K : 352,000원 (외부(外部))

■ 반야심경 열반지 - 은 92.5% 로듐도금
· 크기 : 폭 약 8mm

■ 반야심경 목걸이(원형 서자) 48,000원
· 가늘 18mm, 세로 33mm · 가늘 21mm, 세로 32mm
· 재질 : Silver 92.5% · 반턴형의 채반 포함(은)

■ 반야심경 펜던트 Gold
· 14K : 245,000원 *제인
· 18K : 352,000원 *별도

마하몰 eTrust oTrust 6년연속 인증기업 특별감사이벤트

이벤트 하나, 모든 구매고객에게 열반의 미소 CD를 드립니다.
이벤트 둘,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불보살캐릭터택지를 증정합니다.

■ 수험생을 위한 기능성음반
15,000원 → 13,500원
· 실력 발휘 - 결정적인 순간에 120% 능력 발휘, 시험도 업무도 가볍게 특스!
· 집중력향상 - 잠재 능력을 자극하는 서브리미널 메시지
· 플러스시그 - 미인드 컨트롤 효과로 자신감과 활력이 솟습니다.

합당한 그 손이 내 손이라면 그 고를 참아내며 기원하러...

■ 소원성취 합창초 : 17,000원
샘플형(소3개, 대2개)
· 소(小)20개입 : 60,000원
· 대(大)20개입 : 100,000원

■ 깃바위 소원성취 메달 49,500원 - 은(99.9%)이상
직경 : 40.0±0.1mm
표면처리 : 무광 프루프
제품구성 : 메달, 플라스틱 케이스, 고급케이스

■ 연실합장주 6,000원
■ 연꽃핸드폰걸이 6,000원
■ 연실열쇠고리 12,000원
■ 연꽃목걸이(고급) 15,000원

살아있는 세앗이므로 사용하시다가 실종나면 연세드림 연실의 아랫부분을 3mm경도 갈판 물에 담궈두면 날아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 재질 : 연실(연꽃비인) · 사이즈 : 18mm X 13mm (천연 연꽃씨앗이므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음)
살아있는 연꽃씨앗을 이용해 핸드메이드한 진한정적인 제품입니다.

주문전화 Mahamall.co.kr 02-732-1520

마하몰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삼성, 신한, LG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 삼성 : 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신한카드 : 2~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LG카드 : 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마하몰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동아일보사, 한국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eTrust 인증제도 인증 심사결과, 인증업체우수전공을 무관로 6년 연속선정되었습니다.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